

여야, 숨고르기...원구성 협상 본격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나선 여야가 주말 동안 숨을 고른 뒤 내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는 1일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고 내주부터 시작될 협상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각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은 예정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다음 회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내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장無 제헌절 맞는 사태 피하자” 공감대

4개 교섭단체, 협상 준비...입장차 커 셈법 복잡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 달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여야는 7월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선에서 의견을 모으고 초반 탐색전을 마쳤다.

국회의장 없이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을 맞는 사태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돼 있지만 실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18개 상임위

원장 배분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큰 데다 양당 체제였던 국회가 4개 교섭단체 구조로 바뀌며 셈법이 훨씬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문화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정해줬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 여당

이었던 한국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 등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는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2석과 국회부의장 1석을 원하고 있다. 반면 평화와 정의는 상임위원장 2석 또는 상임위원장 1석+부의장 1석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호 서울경제신문부장



김부겸 출마할까...민주전대 최대 변수

文대통령, 사표 수리시 당대표 출마 승낙 시그널 해석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8.26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 데다 김부겸 출마=문재인 대통령의 시그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김 장관은 여당에서 열세인 대구에서 당선된 의원인 만큼 차기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한 점과 안정적인 장관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차기 당대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D)가 지난달 16~17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보면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6.7%가 김부겸 장관을 1순위로 꼽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김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말을 아끼고 있으나,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관직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즉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김 장관의 당대표 등판을 승낙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으로서 직무를 하고 있어 먼저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할 수

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출마의사가 전혀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건 아니다. 단정을 짓진 말아 달라"고 출마 여지를 남겼다.

실제 김 장관이 지난 28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자 본격적으로 표밭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당정 협의 외에 중앙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송영길·최재성·박영선·이종걸·전철철·박범계·김두관 의원 등도 참석했다.

앞서 김 장관은 28일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내가 정치권에 있으면 '출마합니까'라고 선언하면 되지만 내각에 있는 나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며 "그분들에게서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겠느냐"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전당대회 판에 대통령을 소환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장관이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여당 대표를 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문 정부 2기 개각 대상자에 김 장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유성엽, 정계 은퇴론 일축한 안철수 비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은퇴론을 사실상 일축한 것에 대해 "정치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년여 애증의 시간을 함께 했던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쓴 소리를 한바디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당직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실패해도 원래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일을 다시 계속 하려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유 의원은 "(안 전 의원이) 아직 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다행히 해답이 구해지면 그 때 뭐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자람은, 특히 정치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좀 어눌하더라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어떤 내용이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해상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특히 1일 09시에 실시한 남북간 시험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하여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였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

'총선 전초전' 與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2.4대 1

광주 8곳 19명·전남 10곳 24명

2년 후 제21대 총선의 전초전 격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18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모두 43명이 접수수를 따져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마감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온라인 공모 결과 전국 263개 지역위원장 자리에 459명이 접수, 1.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는 8곳에서 19명, 전남은 10곳에 24명이 접수,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 동남갑은 5대 1, 광산은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광주지역 유일한 현역의원 지역구인 서구갑과 시당위원장의 지역구인 북구를 등 2곳은 단수지원했다. 나머지 동남을·서구을·북구갑·광산갑은 각각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광양·곡성·구례가 5대 1, 여수갑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각각 4대 1, 여수을과 순천시 나란히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역의원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해 목포, 나주, 화순, 해남·완도·진도 등 모두 5곳은 단수 지원했다.

지역위원장들의 임기는 2020년 총선까지다. 이 때문에 이번 공모는 21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던 일부 출마자들에게는 낙선 후 정치적 재기의 발판의 될 수 있다.

중앙당 당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유력 당권주자와의 정치적 교분과 연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지역구 성적표, 6·13 지차단체장 당선인들과의 친분 등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